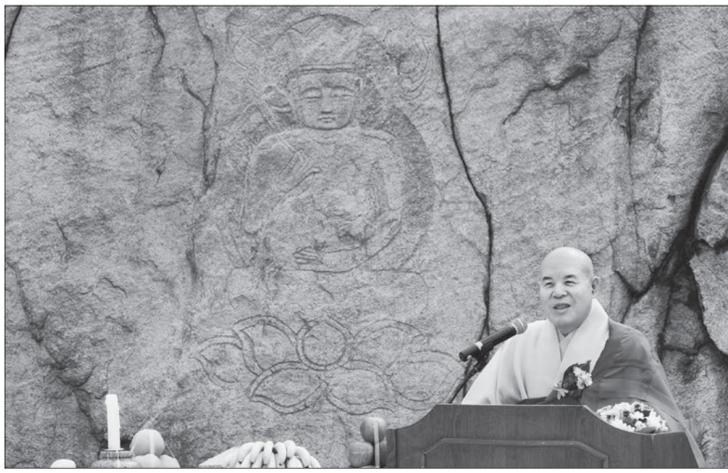


# ‘낙단보 마애불’ 천년 이어갈 성보 되다

### 종단-교구 발견직후 보존 노력 고운사-의성군, 관리동 기공식

4대강 공사 도중 훼손된 채 발견됐던 낙단보 마애불(의성 생송리마애보살좌상)을 보존하기 위한 관리동이 첫 삽을 떴다. 제16교구본사 고운사(주지 호성스님)와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1일 의성 ‘낙단보 마애불’ 앞 광장에서 마애불 관리동 기공식을 봉행했다.

낙단보 마애불 관리동은 훼손된 채 발견된 마애불을 수호하기 위한 종단과 고운사의 노력과 의지로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낙단보 마애불은 지난 2010년 10월, 건설사의 부주의로 훼손된 채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애불 발견 직후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직접 현장을 찾아 마애불을 참배한 뒤, 문화재 훼손경위와 정확한 원인규명을 강조하며 강력한 보존 의지를 천명했다. 이듬해인 2011년에는 종단 차원에서 1080배 정진을 봉행하며 민족문화 수호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2011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32호 ‘의성 생송리 마애보살좌상’으로 지정됐고, 마애보살좌상 주변은 정비 사업을 통해 공원으로 조성됐다. 고운사도 지난 2014년 원종스님을 마애사 주지로 임명하고 마애불을 보존, 관리해왔으며, 음악회와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회, 민족문화보존 결의대회를 봉행하며 마애불 보존에 앞장서 왔다.



지난 1일 제16교구본사 고운사와 의성군이 봉행한 의성 낙단보 마애불 관리동 기공식에서 법문하고 있는 총무원장 자승스님.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늦게 발견됐다면 마애불은 아마도 파괴되었을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끈기를 갖고 기공식까지 이뤄낸 고운사 주지 스님에 감사드린다. 마애부처님의 가피가 고운사 불자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고운사 주지 호성스님도 “오늘 기공식을 통해 국민이 통합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러 불교포럼은 기공식과 총무원장 스님의 방문을 기념해 표지석을 조성했으며, 마애불 관리동이 원만하게 건립되기를 기원하는 내빈들의 시상으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이날 기공식을 가진 마애불 관리동은 111.42㎡(약 34평) 부지에 정면 7칸, 측면 2칸의 ‘ㄱ’자 한옥양식으로 건립되며, 오는 12월경 완공될 예정이다. 의성=임태규 기자

#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으로 제시돼야”

### 김상겸 교수, ‘정치와 종교’ 주제 종교평화위원회 토론회서 강조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만당스님)는 지난 3월31일 서울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에서 종교평화 문화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치와 종교, 공약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심익섭 동국대 교수, 윤세원 인천대 교수, 김상겸 동국대 교수,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상임교수,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등이 참석해 바람직한 정치와 종교의 관계, 다문화, 다종교 사회의 종교평화를 위한 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의 열풍을 일으켰다.

‘대선공약과 정교분리원칙’을 주제로 발표한 김상겸 교수는 정교분리원칙의 실현에 대해 강조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상겸 교수는 “선출직 공무원이든

임명직 공무원이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종교적 중립은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 대선에서는 종교차별 등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차별을 원인으로 한 중요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교수는 “종교 간 갈등은 국가와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개인생활을 파멸하게 할 수 있다”며 “종교차별 금지를 넘어서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는 차별의 영역을 없애는 대선공약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장 만당스님은 “대선을 맞아 대선 후보자 등 정치 지도자들과 국민들에게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다시금 살펴보고 하고 공약을 만드는데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안해 보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 충분산성역화 불사 동참 감사드립니다

한국불교종교를 위한 조계종충분산 성역화불사에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모연금은 조계종 총무원 일대를 정엄하는 여법한 불사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 ■ 기금 모연 명단(2017년 3월 20일~2017년 4월 3일)

□ 기금 : △인천 부루나포교원(원장 선일스님) 2000만원 △정맥회 2000만원 △공주 감사(주지 화봉스님) 1000만원 △부산 인지사(주지 범성스님) 1000만원 △여수 향일암(주지 우석스님) 700만원 △제7교구본사 수덕사(주지 정묵스님) 400만원 △서울 휴휴정사(주지 수경스님) 300만원 △양양 낙산사 흥련암(회주 정념스님) 200만원 △고양 봉덕사(주지 현진스님) 200만원 △서울 호국지장사(주지 도호스님) 100만원 △서울 흥천사(주지 정광스님) 50만원 △전단향 10만원 △김봉옥 10만원 △김혜숙 10만원 △고재선 10만원 △부산 장곡선원(주지 원어스님) 10만원 △김연희 10만원 △김영주 5만원 △이병찬 5만원 △서울 미야 봉은사 5만원 △박정규 5만원 △김삼기 5만원 △정대권 5만원 △서울 3관원 △박선숙 2만원 △백숙자 2만원 △김태원-김태은 2만원 △진준호 2만원 △산용진 1만원 △김민태 1만원 △김미애 1만원 △이순자 5000원. (총 8054만5000원)

※ 모연 후 전화(02-730-6690)를 주시면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성역화불사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청소년 사경공모전 ‘종정예하상’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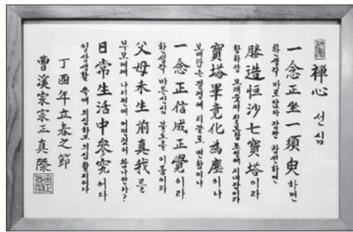
### 파라미타 ‘문수보살 법문’ 제시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심산스님)가 ‘전국 청소년 사경공모전’ 20회를 맞아 특별대상으로 ‘조계종 종정예하상’을 신설하고, 전체 종정예하의 진법 ‘문수보살 법문’(사진)을 경구로 제시했다. 파라미타는 최근 사경공모전 일정을 공고하고 오는 5월2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경공모전은 파라미타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매년 진행해 온 행사로 청소년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특히 올해 새롭게 제시된 ‘문수보살 법문’은 종정예하가 각 가

정마다 액자로 걸어두고 봉송하도록 권하는 것이라 주목된다. 종정예하는 전국 청소년들이 ‘문수보살 법문’을 독송하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학문과 우리말로 뜻을 풀 조절을 친필로 견내고, 상금까지 후원하면서 사경공모전의 활성화를 기대했다.

한편 전국 청소년 사경공모전에는 전국 청소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시된 사경시 안에 사경해 원본을 제출하거나 제시된 경구를 이용해 자신만의 창작성을 발휘한 작품 또는 1일 1회씩 10일 이상 사경한 노트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파라미타에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은 오는 6월21일 파라미타 홈페이지(www.paramita.or.kr)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특



별대상인 종정예하상 2명에게는 각각 상금 50만원이 수여되며 특별상인 봉축위원장상과 불교신문사장상에는 각각 상금 30만원,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에도 상금 30만원이 지급된다. 이밖에도 동국대 총장상, 포교위원장상, 파라미타 총재상 및 회장상 등 40여 명에게 상이 수여된다. 어현경 기자 eonako@ibulgyo.com

### 본·말사 주지인사

(3월29일 중무회의)

바로잡습니다 ※ 본지 3283호 2면 본·말사 주지인사 중 ‘경산 설운암’이 아닌 ‘충주 설운암’으로 바로잡는다고 총무부에서 알려왔습니다.

 여명스님 용인 국력사	 범송스님 대전 영선사	 원광스님 문경 봉암사	 묘우스님 상주 관음사	 묘인스님 구미 화엄암사	 원학스님 군위 인각사	 종열스님 함양 영각사	 선조스님 거창 연수사
 대진스님 양산 원적암	 혜철스님 하동 금정사	 봉운스님 창원 서원사	 정우스님 창원 묘향사	 우견스님 창녕 김로사	 정soon스님 대전 보현정사	 일국스님 광주 자운사	

### 상임감찰 무광스님 임명 호법과장 수행사서 인사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3월30일 호법부 상임감찰에 무광스님(사진), 호법과장에 상인스님, 사서실 사서에 자원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상임감찰 무광스님은 원종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2002년 사미계를 수지했다.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현재 보경사 주지를 맡고 있다. 호법과장 상인스님은 진만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2006년 사미계를 수지했다. 중앙승가대 및 어산작법학교(본과)를 졸업했다. 사서 자원스님은 성효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2004년 사미계를 수지했다. 동국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호법부 조사과장, 호법과장을 역임했다. 장영섭 기자 fue1@ibulgyo.com

## 산중총회

### 소집공고

종헌 제91조 및 산중총회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합니다.

- 다 음 -

- 일 시 : 불기2561(2017)년 4월 30일 일요일(음 4월 5일) 오후 1시
- 장 소 : 제3교구본사 신홍사
- 안 건 : 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의 건
- 구성원 자격
  - 당해 교구의 재적승으로 법계 중역 이상의 비구
  - 당해 교구본사에서 임명 받아 1년 이상 상근한 국장 이상의 종무원
  - 당해 교구 분말사 주지로 재직 중인 비구
  - 당해 교구 말사 주지로 재직 중인 비구나, 다만 비구나 구성원의 수가 비구 구성원의 수의 5분의 1이 안될 경우 그 부족한 수만큼 법계 정역 이상의 당해 재직 비구나 중 법계, 승량, 연령이 높은 순으로 정한다.
  - 당해 교구에 4년 이상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고, 산중총회 개최일 전 4년 이내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계 중역 이상의 비구
    - 당해 교구 선원에서 8만여 이상 성만한 자
    - 당해 교구 대중명부에 등재되고, 관할 교구본사에서 결계 및 포살을 8회 이상 참여한 자
  - ※ 다만, 산중총회법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 재적승, 재직승, 거주승 자격조건이 강화 되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교구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3교구 본사 신홍사 주지 후보자 선출
  - 1. 입후보자 자격
    - 법계 중역 이상, 연령 만 70세 미만의 비구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산중총회법 제93조제항, 중무원법 제6조제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중앙총무관 국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 경력
      - 말사주지로 8년 이상 재직 경력
      - 중앙총회의원으로 4년 이상 재직 경력
  - 2. 입후보자 자격
    -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 경력
    - 선원법에 의해 규정된 전문선원에서 20만여 이상 성만
    - 강원이나 울릉의 교직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
  - 2. 입후보자 등록기간
    - 불기2561(2017)년 4월 18일(화) ~ 4월 20일(목)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 선거법 제31조에 의거 경직을 할 수 없는 직에 해당하는 종무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4월 17일(월) 오후 5시까지 해당 중무직을 사직하여야 함
  - 3. 입후보자 등록서류
    - 등록신청서 1부(소정 양식)
    - 이력서 1부(소정 양식)
    -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재직등본 1부 (단, 출가년도 이후 분가로 인한 독호적, 호주승승나 분직지 변경 등에 의해 호적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 전 재직등본 일체를 추가 제출)
    - 경력 또는 안거 증명서류 1부
    - 중법 준수 각서 1부(소정 양식)
    - 신원조회서 1부
    - 사진 (반명함판) 3매
  - 4. 거주승 신고기간
    - 불기2561(2017)년 4월 8일(토) ~ 불기2561(2017)년 4월 14일(금)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5. 구성원명부 열람기간
    - 불기2561(2017)년 4월 21일(금) ~ 4월 23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6. 입후보자등록 · 거주승신고 · 구성원명부열람 장소
    - 제3교구 선거관리위원회(신홍사 중무소)
  - 문의처 : 제3교구 선거관리위원회(전화 : 033-636-7393)

불기2561(2017)년 4월 8일

☎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선거관리위원장 일 음